

최양업 신부 기념성당(배론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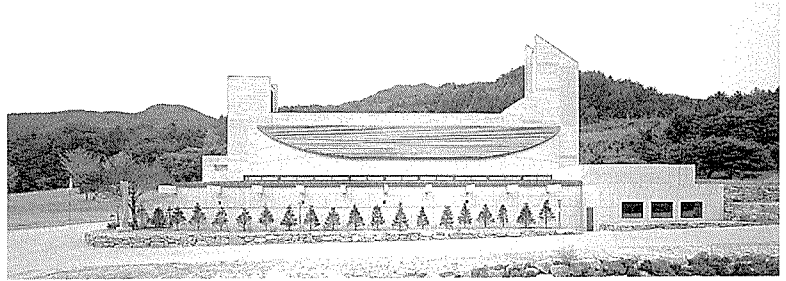
The Priest Choi Yang-Up Memorial Church

박재환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안영배

Designed by Park Jae-Hwan & Ahn Young-Bae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623 외 6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8,468㎡
건축면적	2,011.68㎡
연면적	2,059.18㎡
건폐율	23.75%
용적률	24.31%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지상1층
내부마감	신토석벽돌, 목재 마감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베이스 패널
설계담당	박승민, 강성규, 김희주
시공	(주)태흥종합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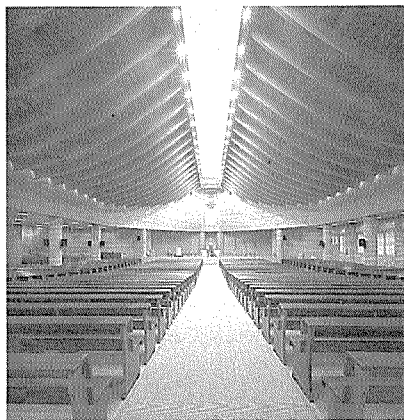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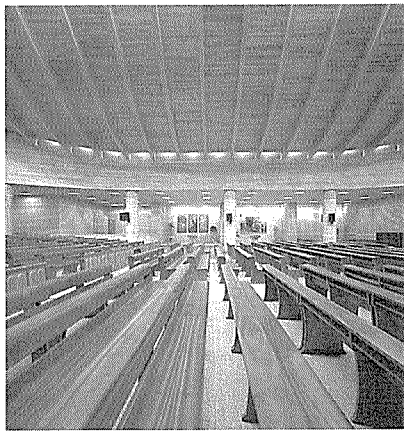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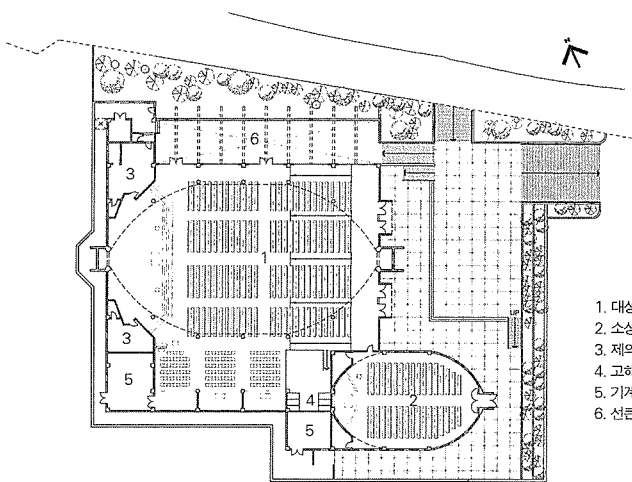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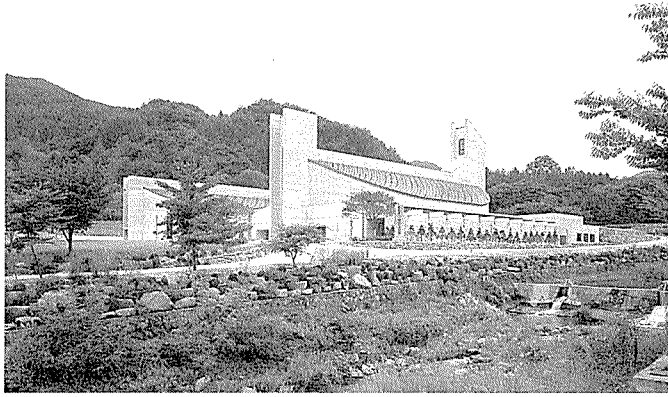
배론은 행정상으로는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로써 치악산 동남 기슭에 있는 구악산과 백운산의 연봉이 둘러싼 험준한 계곡 양쪽의 산골 마을로 골짜기가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배론이라 불리어 오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와 화전을 일구고 용기를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며 신앙을 키워나간 교우촌으로 황사영이 그 유명한 백서를 쓴 곳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지역이며, 한국의 2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원주교구가 관할하는 전국적인 순례 성지이다.

수십 만평의 성지 중 일부만 개발된 기존의 성지에는 황사영이 백서를 쓴 토굴을 비롯하여 순교자 현양탑, 피정의 집, 신학당, 성모동산, 무명 순교자의 묘, 소성당, 성물 판매소 등 전통적인 한국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소규모의 건물과 유적들이 평온한 성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계절별로 순례 신자들의 숫자는 차이가 심해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천여명이 넘게 성지를 찾아 오는데 기존의 소규모 성당이나 제반 시설들은 성지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부족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약 1,000여명과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성당과 소성당을 비롯하여 식당, 관리사무소, 기념관 등을 새로이 계획하게 되었다.

계획 초기부터 대두된 것은 건축양식에 대한 문제였다. 기존의 건물들이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이기에 새로이 계획될 성당의 형태를 기존에 세워진 한옥의 전통양식으로 계획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이며 상징성을 갖는 성당으로 건축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토론이 있었고, 이를 위한 계획안도 여러가지로 준비되었다. 목구조가 아닌 현대적인 재료와 구조 양식으로 재현될 수 밖에 없는 한옥 형태가 전체적인 성지 분위기나 정서에 맞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도 틀림없으나, 1,000여명이 수용되는 대성당이 한옥 구조 양식으로 계획될 경우 기존의 소규모의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과 볼륨을 갖게 되고 공사의 어려움이나 특히 공사비의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기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결정이 쉽지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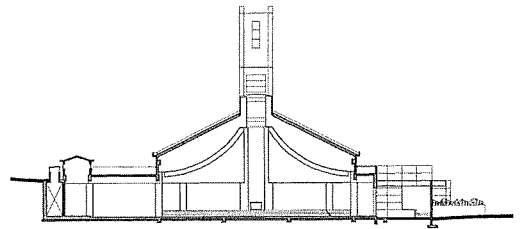
다행스럽게도 이 성당이 최양업 신부 서품 1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성당으로서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계획된 것은 성지가 배 밑 바닥처럼 생겼다는 뜻으로 배론이란 이름과 어울리는 성당의 형태를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하는 배모양으로 만들어 기념성과 상징성을 들어내는 계획안을 구상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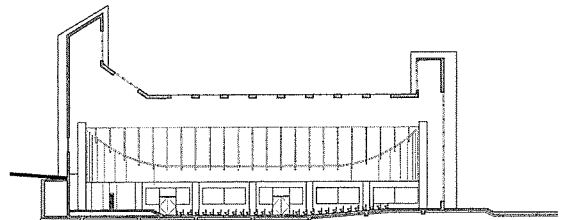


1. 대성당
2. 소성당
3. 제의실
4. 고해소
5. 기계실
6. 선관기

1층 평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